

지역 소식통

정읍시 간부공무원 70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정읍시는 21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이다. 교육의 목적은 공직사회에서 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

강의를 맡은 양동욱 한국현대문화연구원 원장은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며, 일상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과 행동에 고정관념과 편견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양 원장은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간부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다양한 조직 문화 사례를 제시하고, 부서장과 직원들 간의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토론 시간도 마련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꽃정원, 토요일 오후
가을음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오는 28일과 11월 2일 토요일 오후 고창 꽃 정원에서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을 음악회'는 꽃 정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꽃이 가진 긍정적인 치유 효과를 높이고, 치유 문화도시 고창을 알리기 위해 고창군 관내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로 열린다.

음악회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팬 플룻, 기타, 색소폰, 오카리나 등 꽃 그리고 가을과 어울리는 다양한 악기가 연주된다.

특히, 오는 28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변재현과 첼리스트 변재홍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을 가진 전자 바이올린과 전자 첼로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고창을 노동자수지 아래 위치한 고창 꽃 정원은 심신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가져다 주는 꽃들이 만개해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공예문화 학술포럼 개최

거점도시 선정 기념... 강재영 예술감독 공예의 생태주의 관련 기조 강연

부안군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 공예주간 공예문화 거점도시' 공모에 선정된 기념으로 (2024 변산포럼 부안의 생태적 공예문화) 학술포럼을 오는 30일 개최한다.

지난 5월 공예주간(5.17.~5.26.) 동안 부안 청자를 핵심으로 전시, 마켓,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부안이 공예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 학계 전문가, 지역 예술인 등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공예문화 거점도시로서 부안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번 '2024 변산포럼 부안의 생태적 공예문화' 기조 강연은 청주공예비엔



남래의 강재영 예술감독이 '공예가 진하는 자연과의 공존'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을 통해 공예문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사례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기관의 협력을 통한 부안 청자와 공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가들을 통해 공예문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사례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기관의 협력을 통한 부안 청자와 공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안군문화재단은 "이번 포럼은 부안의 공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특히 청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창작 공동체의 활성화와 부안인의 공예문화 성장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누구나 무료 참석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 링크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정다운상권 내 샘고을시장 평화주차장에서 열린 2024 정다운 축제 달하주막을 성황리에 마쳤다.

'상권도 살리고 축제도 즐기고'

정읍 '달하주막', 샘고을시장서 18~19일 성황리 마쳐

정읍시는 지난 18일과 19일 정다운상권 내 샘고을시장 평화주차장에서 열린 2024 정다운 축제 달하주막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축제는 샘고을시장의 특화음식과 10여 종의 다양한 막걸리를 전시하고 홍보하는 자리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에서는 막걸리 킷케일 쇼, 공연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행사장 내 막거리 부스에는 샘고을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 축제 기간 동안 정읍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한 문화공연과 축하공연도 열려 현장

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학수 시장은 "정다운 상권에서 처음으로 정읍 막걸리 시장 특화음식을 함께 선보인 이번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이 새로운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을 통해 정다운상권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0여억이 투입되는 중소기업창업부 공모사업으로,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가을... 별빛 음악회 차분한 감성 '호응'

가을비 속 1000여명 참여... 감성 깊은 선율 · 용산호 풍광 만끽

가을 감성 가득한 선율로 펼쳐진 가을밤 별빛 음악회가 용산호의 아름다운 정읍의 풍광을 널리 알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음악회는 단풍 시즌에 맞춰 18

일부터 20일까지 용산호에서 진행됐으며, 이 기간동안 동안 약 10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비가 내린 첫날에도 200여 명이 들쭉 날에는 300여 명, 마지

막 날에는 500여 명이 찾아,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을 이뤘다.

공연 무대는 용산호를 은은하게 밝히는 야간조명과 여우진 LED무드등을 비롯 아가자기하면서 용산호 일원 풍광을 한껏 돋보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첫 무대를 달군 출연진은 트로트계 섹스벨인 공훈과 반가희, 신미래, 오랜 시간 친분을 쌓아 온 이들은 친구와 이웃 간 정담을 나누듯 편안한 토크와 '다시 만나면 잘해줄게(공훈)', '질비오는 소리(반가희)', '이이침(신미래)' 등 저마다의 노래로 관객들에게 다정한 무대를 선사했다.

들쭉 날은 우중(雨)음악회, 가는 빗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객들을 먼저 반긴 건 개그맨 송승기의 유쾌하고 재치 넘치는 입담이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으로 자살예방 실천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18일 농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한 효죽마을과 정문마을을 대상으로 현관 전달식과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마을 주민들에게 농약안전보관함의 사용법과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였다.

오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안내와 농약안전보관함 사업 설명, 현



관 전달식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이후 생명지킴이 임명식을 통해 자살 예방 활동에 앞장설 주민들을 임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오후에는 각 마을에서 현관 제막식이 진행됐고, 마을 주민들에게 농약안전보관함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교육이 이어졌다. 또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통해 마을 내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강조됐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멜론 · 축산 청년농업인 현장컨설팅

전문가들과 1대1 매칭... "농업 경쟁력,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8일부터 한달여간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청년농업인 현장컨설팅'을 연다.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기술과 경영 역량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멜론과 축산(한우)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6차례씩,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과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매칭되어, 농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제공한다. 실질적인 경영과 기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고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득 증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농업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영농 현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원카드를 구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창업과 경영 안정 지원사업, 농업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청년농업인 현장컨설팅을 통해 청년 창업농들이 실질적인 재배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